

“카풀도 집·마음 맞아야”... 차량5·2부제 확대에 공무원 ‘걱정’

“자칫 ‘상사 모시기’처럼 비취 보일까 봐...”

중동 사태 여파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강화된 8일 오전 광주 북부경찰서.

직원 대상 차량 5부제와 차량 2부제(홀·짝)로 강화된 이날 평소 주차 공간을 알아온 직원 전용 주차장 2·3층은 평소와 달리 텅텅 비어 있었다.

1층의 목 좋은 주차 공간도 종종 비어 있는데다 주차난의 지표로 여겨지는 경사로 주차도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다.

오전 8시45분에는 차량 2부제 강화 실시와 직원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경무과의 시내 방송이 울려 퍼지기도 했다.

지휘관들을 대상으로는 출퇴근 시간 유연근무제 적극 운영 당부와 같은 안내도 곁들이면서 정부의 격상된 에너지 안보 위기를 전했다.

같은 시각 광주 서부경찰서 주차장은 평소와 달리 한산하다 못해 정적마저 감돌았다. 업무용 차량과 일부 직원 차량을 제외하고는 주차난으로 이중주차 등 빼곡해야 할 주차장 곳곳이 텅텅 비어 있었다. 모처럼 주차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직원들은 편하게 주차를 마치고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강화된 차량 5부제 시행 내용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채 진입하려다 발길을 돌린 차량도 4대에 달하는 등 현장 곳곳에서는 지침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달됐다.

광주 서구청사 입구 역시 평소보다 차분한 분위기에 익숙한 통제가 이뤄졌다. 서구 관계자들은 출근길 시민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천하는 에너지 절약! 우리부터 함께해요!’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강화된 지침 홍보에 여념이 없었다.

현장에서는 큰 혼선은 없었으나 기존 5부제와 강화된 2부제를 착각해 행동을 돌려야 했던 직원들의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이날 청사를 찾은 업무 지원 관계자와 직원 3명이 현장에서 제지당하는 등 예외 없는 규정 적용에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차량 5부제가 강화된 첫날인 8일 오전 광주 서구청 주차장으로 한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뉴스시스

광주 경찰서, 직원 주차장 주차난 없어지며 ‘한산’ 구청서는 캠페인 벌이며 지침 홍보... 당황 직원도 “상사 모시기” 오해 살까봐 카풀도 어려워” 호소

발길을 돌린 한 업무 지원 관계자는 “2부제 시행을 압박했다. 업무 지원 때문에 오게 됐는데도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되묻기도 했다.

광주법원종합청사 정문 차단기 주변에서도 법원 직원 3명이 나와 부제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법원 정기등록 차량은 차단기에 홀짝 2부제 위반 여부 등이 미리 입력돼 있었다.

이날 끝자리 홀수인 등록차량이 입차할 때마다 차단기 전광판에 ‘부제 위반 차량’이라는 문구가 뜨며 차단기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위반 차량은 법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회차했다.

엄격한 부제 단속 탓인지 이날 법원 주

차장은 평소 동시간대 대비 빈 자리가 눈에 띄게 늘었다.

공무원들은 대체로 에너지 위기 상황에 따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장기화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를 숨기지 못했다.

서구 한 직원은 “이틀에 한 번 꼴로 주차를 할 수 없게 되면 출퇴근은 물론 업무 효율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 한편, 동구 한 직원은 “카풀도 요새는 ‘상사 모시기’처럼 비취질까봐 엄두도 못낸다”고 손사래를 쳤다.

A경감은 “여태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해 왔지만 앞으로 급할 경우 하는 수 없이 아내가 쓰지 않는 차량 등 집에서 놓고 있는 2부제 미해당 번호판 차량을 몰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다”며 “정부 정책인 만큼 따라야 하지만 언제까지 적용될지 아득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B경위는 “집이 북구 연제동이다. 북부서도 출근해야 하는데 오가는 버스가 두 대 밖에 없어 그간 택시를 타고다닐 수밖에 없었다”며 “차라리 걸어서 출퇴근해볼까도 했지만 편도로 1시간이 걸리는 탓에 포기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카풀 모집도 고민해봤지만 직원들마다 사는 곳과 출근 시간이 각자 다르다보니 모집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부디 빨리 사태가 해결돼 아무 걱정 없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청사 주변을 지나던 한 시민은 “공공기관부터 강력하게 시행하는 모습을 보니 사태의 심각성이 체감된다”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직종이나 상황에 놓인 이들을 위한 세심한 보완책도 함께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권철 기자

차량 부제 첫날 ‘야유회’ 떠난 광주시 대중교통과 직원들 대중교통 수요 늘 것 대비해야할 담당부서가 자리 비워 시민단체 “시민은 혼란스러운데 타 지역 행사한 건 부적절”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2부제(홀·짝)·민원 차량 5부제(요일제)가 추진돼 곳곳에서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대중교통통과가 시행 첫 날 야유회 성격의 소동행사를 진행해 논란이다.

특히 차량 요일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야 하는 담당 부서가 자리를 비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30여명의 직원들은 공무원 차량 2부제·민원 차량 공공기관 5부제가 시행된 지난 8일 답양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직원간 소동행사를 진행했다.

직원들은 답양 수변면에 있는 광주 시내버스 회차지와 차고지 점검, 전남 광주 통합에 따른 광주~담양간 시내버스 증차 등을 위해 공용시외버스터미널을 둘러본 뒤 답양호에서 산책 등의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매년 2차례 부서별로 직원간 소동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중교통과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첫날 관련 행사를 추진했다.

반면 차량 부제를 담당하는 에너지 산업과 직원들은 어깨띠 등을 두르고 이날 시청사로 진입하는 임직원·민원인의 부제 적용 차량을 세운 뒤 “주차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일부 민원인은 5부제 시행을 알지 못했다며 항의했고 이같은 현상은 광주지역 418개 소 공영주차장에서도 이어졌다.

대중교통과는 차량 부제 시행으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 지하철과 시내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전세버스 투입 등의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지역 시내버스는 1044대로 3월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은 34만 6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 증가는 학교 개학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차량 부제가 민간부문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대중교통과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광주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차량 부제가 시행된 첫 날 시민들은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 했다”며 “에너지 비상 공급에 빨간불이 켜지고 지난 2004년 이후 18년만에 차량 부제가 시행된 상황에서 대중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부서가 타 지역에서 행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 관련 차량 부제는 다른 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직원간 소동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는 차량 부제로 인한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났다고 분석되지 않았지만 추후 차량 부제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내버스 증차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민규 기자

‘청사 조명 소등, 승강기 운행 제한’ 광주시 에너지 대책

광주시가 중동 불안에 따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야간경관 조명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 대상 기관은 시청사를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 전체이다. 도시의 미관을 담당하던 청사 야간 경관조명 운영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부터 9시로 1시간 단축했으며 에너지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전면 소등할 계획이다.

시청사 1층 공용공간 조명은 주간 30% 소등하고 건물 내 난방시설 가동은 중단한다. 또 주차장과 지하 복도의 조명 밀도를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점심시간과 업무시간 이후인 오후 9시에는 필수시

설을 제외한 모든 사무실 전등을 일괄 소등한다.

특히 승강기 운영의 경우 이용객이 적은 평일 오후 7시 이후와 주말에는 전체 승강기 중 30% 이상의 운영을 중단해 불필요한 동력 소모를 억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은 승용차 2부제(홀·짝)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 업무 등을 위해 시청사를 방문하는 외부 차량은 요일제(5부제)를 적용한다.

김동현 자치행정국장은 “시청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운영해 심야시간대 전력을 충전하고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피크시간대에 방전해 전력 사용을 분산하고 있다”며 “중동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민들의 동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광주에서 무단횡단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13일부터 5월10일까지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3월 한 달간 광주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사고는 총 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건)에 비해 2배 증가했다. 특히 전체 사망사고 중 절반인 3건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로 나타났다.

광주서 교통사망사고 2배 급증... 경찰, 집중 단속 추진

3월 사망사고 6건... 13일부터 5월10일까지 취약지 계도·단속

실제 지난달 5일 오후 5시40분께 북구 동림동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5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졌고, 같은 달 11일 오전 6시30분께 남구 진월동에서도 무단횡단 중이던 70대 남성이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지난 25일 오전 6시15분께 북구 신안동 한 도로에서도 무단횡단 중이던 80대 여성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등 보

행자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이에 경찰은 단속 기간 신호위반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우회전 시 일시정지), 무단횡단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취약 시간대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또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행 안

전수적 교육과 합동 캠페인을 추진해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운전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운전자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현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